

## Franz Kafka의 作品 'Die Verwandlung' 研究(Ⅰ)

——變身譚의 象徵的 意義를 中心으로——

金 最 鎮  
(獨語教育科)

### I. 序 論

Franz Kafka(1883~1924)의 中篇傑作 '變身' (*Die Verwandlung*)은, 甲蟲의 이야기가 主題로 되어 있지만, 昆蟲의 生態를 記錄한 Jean Henri Fabre(1823~1915)의 昆蟲記 (*Souvenir entomologiques* 1910)와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Die Verwandlung' 과 같은 變身譚은, 古代羅馬의 Lucius Apuleius(123~?)의 '黃金노새' (*Metamorphoses*), Arabian Night's Entertainments, Gebrüder Grimm [Jakob(1785~1863), Wilhelm(1786~1859)]의 '어린이 童話와 家庭童話' (*Die Kinder-u. Hausmärchen* 1822), 그리고 南美 아르젠틴出身 Jorge Luis Borges(1899~ )의 '幻想의 動物誌' (*Die Fantastische Fauna* 1944)에 이르는 世界文學史의 系列에 넣을 수 있는 作品이다. 그러나 이 作品 'Die Verwandlung'의 特色은, 人間이 昆蟲으로 變하는 獵奇的인 事件 그 自體보다도, 奇想天外의 事件을 極히 平凡한 日常事처럼 叙述하는 冷靜한 報告形式의 即物的 寫實的인 描寫法, 이른바 魔的 寫實主義의 筆法이 讀者에게 주는 衝擊이라고 하겠다.

文學에 있어서 人間을 忌避하고 動物을 登場시키는 手法은, 決코 正道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Kafka의 超現實主義의 變形歪曲化的 筆法은, 在來式의 正統的乃至는 古典的인 그것보다도 한층 至大한 効果를 거두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Kafka에게 있어서는, 感覺的인 것에 依해서 超感覺的인 것이 具體化되고, 非正常的인 것과 詩的인 것이 合쳐져 있는데, 獵奇的이며 不安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루고 있는 點에서, E.T.A. Hoffmann(1776~1822) 또는 美國作家 Edgar Allan Poe(1811~1849)와 비슷하다. [Janouch, 1951:26] (Krell, 1955:385) 또 人間存在의 限界에까지 肉迫하여, 거기서 體驗을 이끌어 내온 20世紀 現代作家로는, Kafka, Gottfried Benn(1886~1956), 그리고 Ernst Jünger(1895~ )의 세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質問은 抒情詩人的 그것과도 같고, 그들의 世界는 無意味한 삶을 威脅하는 虛無의 어둠속에 잠긴다. 그것은 하나의 課題이며, 그 表現法으로서 이와 같은 存在의 體驗이 克服되고, 또 그 課題의 解決法은 神에게서 疎外된 暗黑과의 真摯한 邂逅속에서 나타난다(Grenzmann, 1953:335).

Kafka가 描寫하는 世界는 所謂 不條理의 現實이다. 存在論(Ontologie)에 立脚한 그의 實存의 場에서 創造된 作品은 一種의 異常한 不毛性과 非人間化를 갖고, 從來의 小說과는 判異한 이른바 超現實主義와 傳說說話의 複合世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意圖와는 달리 高次元의 世界를 志向했던 그의 現代寓話가, 非合理的인 超越속으로 逃避하려고 하는 現代人の ‘免罪符’(Ablaßbrief)가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不可思議한 現實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어떤 合理的인 尺度를 提供해주는 것도 아니다. 逆說的으로 말하자면, Kafka가 描寫하는 現實속에서는, 人間은 전혀 살고 있지 않으며, 모조리 幽靈(그림자) 또는 動物(벌레)와 같은 存在이다. 이 作品에서 主人公 Gregor Samsa의 變身譚이 象徵하고 있는 것처럼, 現代에 있어서 原罪를 犯한 人間은 벌레라는 事實을 自覺함과 同時에, 그 宿命속에서 超越의인 絶對者(神)에 依해서 駭嚴한 審判을 받는다. 이리하여 現代人은 不安·恐怖·絕望속에서도 人間性의 回復과 아울러 所屬獲得을 懇願·渴求하는 것이다.

이 作品은 所謂 ‘孤獨의 3部作’(Trilogie der Einsamkeit)이라고 부르는 ‘訴訟’(Der Prozeß 1925), ‘城館’(Das Schloß 1926), 그리고 ‘아메리카’(Amerika 1927)와 함께, 孤獨과 絶望, 不安과 恐怖, 人間疎外와 삶의 不條理에 사로잡혀, 限界狀況에 處한 異邦人의 赤裸裸한 모습을 描寫하고 있다. 또 이 作品은, 短篇傑作 ‘死刑宣告’(Das Urteil 1913), ‘시골醫師’(Der Landarzt 1919), ‘流刑地에서’(In der Strafkolonie 1919)等의 作品群과 더불어, 現代人이 當面한 宿命의in 非人間化와 幻想의in 惡夢의 世界를 그리고 있다. 그런 點에서 이 作品은, 長篇과 短篇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의 作品系列에서 異彩를 띠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II. 本 論

### 1. 變身과 說話

變身의 論理는 說話發生期에 있어서 妥當한 根據를 갖고 있다. 原初의 思惟에 依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正常的 體驗의 世界 밖에, 또 다른 하나의 世界, 自然에 先行하는 神話의 世界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 神話의 世界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며, 따라서 그 世界는 可變的 世界라고 볼릴 수 있다. 그 自由의 時間과 空間에서는, 우리들의 論理展開에서 不可能한 것이 可能하고, 同時に 그 妥當한 經過原리가 支配하고 있다. 따라서 實際로 우리들이 奇蹟이니 變異라고 부르는 것이, 日常의 事實로 化하고 마는 것이다. 人間은豫期치 못했던 일을 當하면, 그 일 即 그 變異가, 日常의 事件의 根源에서 일어나므로, 人間은 힘으로서도 어떻게 支配해 볼 道理가 없는 것으로 看做되고, 그런 일을 당하는 境遇에는, ‘超自然的’이라는 表現을 쓴다는 것이다. (Lee,

1975:313, 325)

따라서 變身說話는, 合理的 思考의 訓練을 거친 歷史的 觀點에서는 退化될 수 밖에 없으며, 自然의 秩序, 그 法則性을 믿는 現代的 意識아래서는, 더 以上 展開될 素地가 없다. 그러나 그 變身思想이 世界의 根源과 關聯되어 있는 限에서, 人間은 喪失한 故鄉을 그리며 回復하듯이, 어느날 뜻하지 않게 合理的 思考의 틈바구니를 뚫고 비쳐드는 原初의 太陽에서, 다시 한 번 그 驚異의 可變性을 體驗하게 되거나 追想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變身의 才能이, 幻想小說의 範疇 속에서 파다거리거나, 意識의 흐름을 쫓아 象徵되기도 한다. 일찌기 變身은, 象徵이 아니라 現實이었다. 古代社會의 原初的 思惟속에 混在해 있는 原始信仰의 壱 가지 思想들은 적어도 變身說話를 通해서 民間傳承의 壱 現象으로 意識과 思惟 속에 沈澱되어 남아 있고, 그 痕跡은 變形(Deformation)을 通해서 多彩롭게 展開되면서, 現代意識 속에 有形無形으로 作用하고 있다. 單純한 變身意識과 類型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遊戲的으로 짜여져 있는 民謡의 世界에서는, 아직도 變身思想은 살아 있는 現實이다. 實地로 살아 있는 變身說話는, 民間信仰 속에 남아서 傳承되고, 民間傳承이 살아 있는 現代社會에는 變身思想도 남아 있다. 여기에 變身說話의 現代的 受容에 對한 問題가 擡頭한다. German의 民間信仰에 따르더라도, 사람들은 變身體가 獨自의으로 그 무엇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變身體임을 判別할 수 있다. 그것은 變身者를 自然스런 動物과 區別짓는 크기・表現・말 才能等이다. 또 主神 Odin의 肉身이 짐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동안, 그의 냉은 새・짐승・물고기・별레 等으로 化하여 瞬息間에 면 나라로 간다. 그리고 輪廻思想은, 靈魂廻遊의 基本的 構造 위에서 그것을 前提로 삼아 發展한다. (Lee, 1975:337, 341)

動物變身은 자주 童話의 Motiv으로 登場한다. Kafka의 變身譚은, 많은 特徵에 있어서 마치 童話와 같은 印象을 준다. 하나의 動物로 變身한 人間이 家族들과 共存하는 이야기는 한쪽으로는 特殊한 種類의 Motiv인 同時에, 다른 쪽에서는 古代로부터 내려 오는 歐洲文學의 傳統的인 Motiv으로서 比較的 많이 試圖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Kassel, 1969:157). Kafka의 作品에 나오는 主人公들은,例外 없이 幻影 또는 幽靈과 같은 人物, 또는 動物들의 物體化이다. 이 作品 'Die Verwandlung'은 人間이 動物(甲蟲)로, 그리고 이어서 事物(物體)로 變身하는 過程을 象徵的으로 그리고 있다. Kafka의 世界는, 全體性으로서 諸階序의 對決로서 認識된다. 人間의 發展에 있어서 決定的인 瞬間은 永續의이다(Walser, 1968:5).

'Die Verwandlung'은 훌륭한 毒蟲(Ungeziefer)小說이다. 그리고 Kafka는 이 作品에 있어서 不完全함을 免치 못하는 人間을 賤待格下하여 이것을 甲蟲으로 變身시킨다(Biographie, 1954:157, 164). 이처럼 우리들은 人間動物變身이 動物靈物觀에서 動物同格으로, 다시 動物 賤格의 過程으로 옮겨 간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 變身은 確實히 明知에 對한 倫理의 무서운 形象을 描寫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모르는 사이에, 人間이 動物로 變身하는 것을 느끼는 人間의 非常한 驚愕의 所產이기도 하다. 이 根本의 二義性(Zweideutigkeit) 속에,

Kafka의 秘密이 숨어 있다. 自然스러운 것과 異常스러운 것, 個別과 普遍, 悲劇的인 것과 日常的인 것, 그리고 不條理와 論理의 사이에 있는, 이 끊임없는 動搖가, 그의 모든 作品을 通해서 나타나며, 그 反響과 더불어 그 뜻을 附與하고 있는 것이다. 이 不條理의 作品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이들 逆說과 부딪쳐 그 矛盾을 究明하지 않으면 안된다(Camus, 1950:163~164).

## 2. 成立과 概要

Kafka는 1912年 9月下旬, 短篇小說 ‘Das Urteil’의 執筆에 着手, 단지 하룻밤 사이에 이 것을 終結시켰다. 그리고 10月에서 11月에 걸쳐서, ‘火夫’(Der Heizer), 即 長篇小說 ‘Amerika’의 第1章에 該當되는 部分의 殆半을 執筆한 다음 바로 이어서 11月에는, 이 作品 ‘Die Verwandlung’을 脱稿했다. 이처럼 1912年 가을은, Kafka의 創作面에서 豐作이었고, 不過 3個月 사이에 短篇·中篇의 三大傑作들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 作品 ‘Die Verwandlung’은, 成立後 바로 發表되지 않고 그 出版時期는 約 3年間 늦어져서 1915年 11月에 베로소 Kult Wolff書店에서叢書로서 刊行되었다. 一般的으로 그의 作品들은 未完 또는 斷片으로 끝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이 作品은 그래도 제대로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點과, 그의 生存時에 出版되었다는 點이, 그 特色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afka는 Janouch와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光明은 마음의 暗黑에서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光明이 人間을 壓倒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없으면 글을 쓸 機會가 없습니다. 나는 몇번이나 스스로 어두운 獨房에 갇혀 있는 事實을 意識합니다.” 이 말을 듣고 Janouch는 Kafka自身이 作品 ‘Die Verwandlung’에 나오는 ‘不幸한 빈대’(die unglückliche Wanze aus der Verwandlung)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또 變身을 一種의 ‘秘密漏洩’(Indiskretion)이 될는지 모르지만 告白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變身은 무서운 꿈이다. 소름이 끼치는 表象이다. 꿈은 現實을 暴露하는데, 그 現實의 背後에는 表象이 남아 있다. 그것은 삶의 恐怖이다. 藝術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때문이다.” (Janouch, 1951:14, 27)

라고 말하고 있다.

Kafka自身은 이 作品에 對해서, 그 日記文에서 다음과 같이 批評을 加하고 있다.

“집에서 <Die Verwandlung>을 읽어 보았더니, 形便없는 拙作이었고, 나는 全的으로 失敗한 셈이다.”(Nun las ich zu Hause ‘Die Verwandlung’ und finde sie schlecht. Vielleicht bin ich wirklich verloren). 그리고 또 이 作品에 對해서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결될 수 없는 嫌惡를 느끼며, 徹頭徹尾 失望했다고 告白하고 있다(Tagebuch, 1954:323;20. 10. 1913). 이 作品은 時間의으로若干 먼저 나온 ‘Das Urteil’과는 두드러지게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 두개의 作品은 그 共通點과 더불어, 그 内容과 特色, 그리고 執筆動機에 있어서, 多分히 異質的인 面을 發見할 수 있다. 即 ‘Das Urteil’에 있어서는, 無慘하게도 父親은 主人公에게 濡死命令의 死刑宣告를 내려서 그를 犠牲시킨다. 그런데 ‘Die Verwandlung’에 있어서는, 創作上 하나의 條件反射(der bedingte Reflex)乃至는 精神淨化(Katharsis)로서 刑罰을 緩和 또는 輕減하는 뜻에서, 主人公의 自由活動을 制限・拘束하여 房안에다 監禁하는 禁錮刑에 處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두 개의 作品은, 그 執筆時期가 비슷하기 때문에, 作家自身의 類似한 環境과 雾圍氣와 精神狀態에서 이뤄졌다는 點도 看過할 수 없다. Kafka는 ‘Das Urteil’에 關해서 “그것은 한밤중의 亡靈이다.”(Janouch, 1951:25)(Es ist das Gespenst einer Nacht.)라고 述懷하고 있다. 이것은 ‘Die Verwandlung’의 境遇에 있어서 ‘무서운 꿈과 表象’(ein schrecklicher Traum und eine entsetzliche Vorstellung)이라고 말한 것과 一脈相通하는 作品의 雾圍氣와 作家의 精神的 風土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 두 개의 作品들은 다 같이 아주 짧은 期間內에, 그것도 特히 作品의 終末部分에 가서는 一鴻千里로 써내려 갔으며, 一種의 實存의 昂揚의 效果를 志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端的으로 말해서 Kafka는 ‘Das Urteil’과는 對照的으로 이 作品에서는 比較的 古典主義의 手法에 가까운 描寫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異色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點에 關해서는 이 作品의 다음과 같은 概要를 읽어 보아도 어느 程度 짐작이 갈 것이다.

어느 會社의 善良하고 誠實한 外販員인 主人公 Gregor Samsa가 어느날 아침 不安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自己몸이 보기 흥한 별례로 化해 있었다. 이제까지 한 家庭의 支柱로서, 兩親과 누이同生을 扶養해 오던 Gregor는, 아무런 理由도 없이 그리고 또 이렇다할豫感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崎嶇한 運命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甲蟲으로 變身해 버린 것이다. 이 本意도 아닌 變身을 契機로 하여, Gregor는 家族과 周圍사람들에게 忌避와 嫌惡의 對象이 되고, 나중에는 虐待와 迫害까지 받게 된다. 그는 스스로 行動의 自由가 制限되어 自己房안에 갇힌 채, 脱出口없는 軟禁生活을 繼續하다가, 마침내 父親이 던진 沙果를 몸에 얹어 맞고, 말라 비틀어진 凶測한 甲蟲의 모습으로 悲慘하게 죽고 만다. 그런데 家族들은 Gregor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커녕, 그것이 지긋지긋한 惡夢이었다는 듯이 憂鬱한 氣分을 송두리째 清算하고 이를 폐 없는 悲劇에서 解放되어 逆境에서 救濟된 양, 따뜻한 봄의 햇빛을 받으며 郊外로 함께 消風나간다.

### 3. 特色과 筆法

Kafka의 수많은 寓話 또는 譬喻는 限敘이 矛盾에 가득 찬 뜻을 象徵的으로 内包할 뿐이고 大體로 거의 解義조차 할 수 없다. 動物들이 말하며 登場하여 人間世界를 아래에서부터 비쳐 준다. 獻奇的인 것이 익살처럼 우스꽝스러운 外貌를 끓고, 怪異하고도 戰慄的인 雾圍

氣로 充滿된다. 그의 作品들은 거의 寓話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寓話는 말하자면 Kafka의 文學上의 理想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훨씬 超越한 作家이다(Grenzmann, 1952:143).

이 作品의 줄거리는 아주 單純하며, 平凡한 庶民家庭을 背景으로 해서 展開된다. 即 主人公 Gregor가 甲蟲으로 變身한 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生活過程이 寫實的으로 追眞性을 갖고 即物的으로 描寫되어 있다. Kafka의 超現實主義의 完璧한 手法은, 그 素材를 벗어나서, Gregor의 哀切한 心情과 더불어, 家族들의 非情의 心理變化를 切實하게 느끼게 한다. 이 作品에서는 Gregor를 둘러싼 家族과 緣故者들의 動靜이 날낱이 簡潔한 文體로 描寫되고, 豐富한 諧謔과 辛辣한 諷刺, 深刻한 背理와 逆說等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이 作品은 讀者에게 對해서 徹底하게 無意味한 人間存在의 實相을 浮刻케 한다. 第1次 世界大戰後에 있어서 中產階級의 没落과 大衆社會의 非人間化를 背景으로 삼아, 孤獨한 小市民이 處한 極限狀況에 對해서, 完璧한 文學表現을 附與하고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Kafka의 思想을 端的으로, 그리고 典型的으로 表現한 中篇傑作이라고 보는 것도 妥當性이 있는 見解이다.

于先 精神分析學의 으로 考察해 볼 때, 이 作品에는 ‘Das Urteil’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Ödipus(od. Vater)komplex의 特徵이 짙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Kafka의 境遇 ‘父親에게 드리는 便紙’(Brief an den Vater 1919)에 두드러지게 엿보인다. 作品 ‘Die Verwandlung’에 있어서, Gregor의 母親이 恒常慈母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對해서, 父親은 徹頭徹尾 Gregor家庭의 專制의 暴君과 같은 嚴父像으로 描寫되어 있다. Gregor의 父親은 곁으로는 無氣力・無能의 權化처럼 보이지만, 事實인즉 한 家庭의 無視못할 絶對的 支配者로 君臨하고 Charisma의 人物을 象徵하고 있다. Gregor가 變身한 다음, 처음으로 房門이 열리는場面에서 “처음에 父親은 Gregor를 房안으로 몰아 넣으려는 듯이 자못 憎惡에 가득 찬 表情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威脅의 態度를 取했다. ……”(Erzählungen, 1954:87). 또 이 作品의 第2章 끝 場面에서, “父親은 기다란 制服자락을 뒤로 젓히고 두 손을 바지・포켓트속에 치넣은 채 憤怒에 가득 찬 表情으로 Gregor에게로 덤벼 들었다. 父親은 일부러 다리를 번갈아 높이 쳐들고 쫓아 왔는데, Gregor는 父親의 長靴 밑창의 크기를 보고 기겁을 했다. …… 이윽고 父親이 沙果를 彈丸처럼 Gregor에게 던지려고 決心한 듯이 보이는 이 마당에 있어서 Gregor는 逃亡칠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父親이 두 번 째로 던진 沙果알이 그의 등의 연한 살에 사정없이 박히고 말았다.”(Erzählungen, 1954:117~118).

이 作品에 있어서 甲蟲으로 變身한 Gregor는, 如前히 人間意識과 良心을 갖고 出發時間을 걱정하고, 社長과 支配人の 誤解를 念慮하며 自己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있어서, 家族들의 運命에 對하여 苦悶한다. 이 怪奇한 甲蟲의 生活은, 家族들의 平凡한 日常生活과 併存하여, 兩者の 斷絕 사이에 奇怪한 交涉이 執拗하게 描寫되어 있다. 그 明暗 속에서 떠도는 소름이 끼치는 諧謔, 그것이 全體的으로 자아내는 異常스럽고도 荒寥한 雾圍氣, 이것들은 讀者로 하여금 세롭고도 判異한 世界認識으로 이끌어 가고, Kafka自身의 卓越한 觀察

力，微妙・纖細한 心理描寫의 手法，그 獨特한 世界的 現實의 規模에 對해서，驚愕을 禁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超現實主義의 繪畫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의 世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現代人이 處해 있는 現實世界를 描寫하고 있는 것이다. (Ruf, 1974:52)

Gregor는 甲蟲으로 變身한 直後부터，自己房의 열쇠를 没收당하고 房안에 軟禁된 채，行動의 自由마저 制限된다. 그러나 人間은 本來 自由를 求하는 存在인 同時에，또 恒常 한군데 定住하기를 希求하고，運命에 대한 鄉愁를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Gregor는 ‘存在와 無’(Sein und Nichts)의 限界에서 있을 뿐더러 逆說的으로 내던져진 條件下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問題의 焦點이 되는 것은 變身한 Gregor와 家族들과의 關係이다.

“누이同生 Grete는 房안에 들어 가고 兩親은 房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이윽고 그녀가 房에서 나오자 그들은 아들의 食慾과 動靜이 궁금해서 그의 狀態를 여러가지로 물어 본다 (Erzählungen, 1954:93). 어떻게 보면 家族들에게 있어서 Gregor의 變身은 慫患(疾病)과도 같다. 一般家庭에서 患者가 發生하는 境遇에 있어서，家族들은 于先 깜짝놀라고 다음에는 念慮하며，이어서 恨嘆한다. 더욱이나 往年에 第1次 世界大戰當時만 하더라도 肺病이나 癰病과 같은 慢性傳染病은 天刑病이라고 하여 마치 오늘날의 癌疾患처럼 不治의 病처럼 看做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醫師의 診斷結果一旦 肺病이라는 事實이 밝혀지면，文字 그대로 死刑宣告의 烙印이 찍힌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그토록 親密하고 多情스러웠던 家族들의 態度마저 時日이 經過하는데 따라서，차츰 冷談・無情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 家族의 支柱로서 重要한 役割을 해오던 Gregor와 같은 核心的 存在일지도，治癒될 수 없는 患者(罪人)로서 急轉直下，귀찮은 存在，천덕구려기，아무 쓸모없는 無用之物로 轉落하고 만다. 이리하여 그 患者는 限없이 구박과 賤待와 迫害를 받은 끝에 孤獨과 絶望 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患者가 숨을 거둔 瞬間，처음에는 家族들이 悲歎속에 빠져서 痛哭하지만，얼마 안가서 슬픔을 씻은 듯이 깨끗이 諦念해 버리고，깜짝 놀랄 程度로 明朗해진다. 實際로 Kafka는 第1次 世界大戰當時 肺結核患者였고，1917年 여름에는 喀血을 했으며，晩年에는 喉頭結核까지 併發하여 他人의 말은 알아 들지만 스스로 發聲에 큰 困難을 느꼈다고 한다. 當時 Kafka가 居住했던 Prag의 人口는 約 50萬이었는데，그 가운데 獨語를 말하는 人口는 約 2萬 5千에 不過했다. 따라서 當時 Prag에 있어서 獨語를 常用하는 사람들은 言語의 困難을 느끼고 相互間의 意思疎通이 如意치 않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자못 深刻했던 模樣이다. 무릇 言語는 人間의 基本的인 表意手段이자 感情傳達의 主要機能을 發揮하므로，個人이나 家族相互間의 愛情도 言語가 媒介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人間關係와 社會生活에 있어서，言語의 重要性은 새삼 強調할 必要 조차 없을 것이다.

이 作品에서 主人公 Gregor가 動物로 變身하는 것은 하나의 積極的인 뜻을 갖고 있다.

Gregor는 元來 音樂的 素質이 豐富해서 先天的으로 바이얼린을 잘 타는 누이同生을 音樂學校(Konservatorium)에 보내려고 計畫했던 일이 있었다(Erzählungen, 1954:102). 그런데 甲蟲으로 變身한 Gregor는 누이同生의 바이얼린彈奏를 귀담아 들었을 때, “音樂에 이처럼 魅惑당해도 自己는 그래도 動物인가? Gregor는 <自己가 憧憬하고 渴求하는 未知의 糧食족으로 方向>(der Weg zu der ersehnten unbekannten Nahrung)이 提示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Erzählungen, 1954:130)라는 決定的命題가 입에 오른다. 여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動物變身의 뜻이 밝혀진다. 即 여기서 問題가 되어 있는 것은 地上에 存在하지 않는 ‘未知의 糧食’이다. 그는 動物인 同時에 動物 以上的 것이고, 그의 ‘異化’(Verfremdung)는 그 사람속에 이 ‘糧食에의 憧憬’을 喚起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 어느 境遇를 莫論하고 Kafka에게 있어서 音樂은 모든 現世的인 諸限界에서 人間을 빼앗아 가는 하나의 可能性을 뜻한다. 그리고 作品 ‘어느 개의 探求’(Forschungen eines Hundes) 속에서 如前히 問題가 되어 있는 것은 音樂과 榮養學을 結合하고 音樂의 도움을 빌려서, 이 現世의 것이 아닌 糧食을 위로부터 誘引·降下시키기 為하여 ‘糧食을 끌어 내리는 노래에 關한 理論’(eine Lehre von dem die Nahrung herabrugenden Gesang)을 展開하는 것이다(Beschreibung, 1954:289). 그리고 이 理論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自由를 보다 높이 評價하는 究極의인 學問’(Beschreibung 1954:290)으로 이끌게 된다. Gregor의 甲蟲變身이 最終的으로 志向하는 것은 作品 ‘아카데미에의 어느 報告書’(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 1919)에 나오는 원숭이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自由에의 脫出’(der Ausbruch in die Freiheit)이고, 人間의 ‘未知의 糧食’에의 憧憬이다(Emrich, 1960:124). 逆說的으로 그리고 結果的으로, Gregor는 變身을 通해서 自由와 救濟를 摸索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食事(das Mahl)는 一次的으로 榮養攝取를 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社會學的 宗教의 意味에 있어서 食卓(der Tisch)을 뜻하며, 共同社會와 接觸交流에 參與함을 暗示한다(Lentner, 1961:483). 그러나 이 作品 속에는, 이와 같은 認識의 内容에 關해서 아무데도 言及된 바가 없을 뿐더러 또 여기서 問題가 되어 있는 ‘未知의 糧食’이란 果然 精神的, 宗教的, 心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物理的인 뜻으로서의 糧食에 지나지 않는지 그點에 關해서도 전혀 示唆되어 있지 않다.

이 作品에서 Gregor는, 宿命的인 審判에 依해서 瞬間的으로 人間存在로서의 未來時間은喪失하고, 自由스런 生活이 없는 窒息할 것 같은 空間 속에서 十字架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다. Kafka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個性이 崩壞되고 또 外界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自己自身에 對해서도 懷疑를 품고, 이미 現在社會를 客觀視하지 못하는 그런 絶望狀態로부터 出發한다. 이리하여 内面的으로만 深刻한 孤獨感情을 獨創的인 幻想으로서 外部의 客觀的 現實에 適用시키고, 그것을 作品가운데 나오는 客觀的 現實과 代替한다. 따라서 作品속에는 性格이나 情緒도 없고, 典型的인 人物創造란 不可能하며, 단지 있는 것이라곤, 問題의 인 狀況과 事件의 幻想뿐이다. 그는 自己自身의 內的 感情을 實現할 수 있는 것 같은 非現

實의 世界를 作品속에 完璧한 形式으로 創造하고, 그 世界속에 갖가지 比喻와 諷刺를 엿어 넣으면서 主觀을 止揚한 客觀世界를 實現시키고 있다. 여기에 그의 獨特한 Ironie가 成立하며 그 周邊에는 異常스럽게도 二重複寫의로 微笑와 戰慄이 함께 감돌고 있다.

이 作品에는 作家가 意識的인지 無意識的인지, 그렇지 않으면 偶然의 一致인지 모르지만, 締密히 檢討해 보면 3이라는 數字가 많이 눈에 뛴다.

- ① 作品全體가 3章으로 나눠져 있다.
- ② Gregor를 둘러싼 主要登場人物(家族)이 兩親과 누이同生의 3名으로構成되어 있다.
- ③ 第1章에 나오는 Gregor의 住宅構造를 살펴 보면, Gregor의 寢室을 가운데 놓고, 그兩側에 位置하고 있는 左右의 房으로부터, 家族들과 會社關係者가 Gregor의 起床을 訴促한다.
- ④ 下宿을 치게 된 Gregor의 집에는 紳士 3名이 登場한다.
- ⑤ 作品全體가 時間(Zeit), 空間(Ort), 行爲(Handlung)에 關해서 三一致(Dreieinheiten, trois unités)의 法則에 合致된다.

上述한 가운데 ③의 境遇, 即 出勤時間이 되어도 Gregor가 일어나지 않자 Gregor의 房을 한가운데 두고 左右의 房으로부터 挟攻하면서 起床을 재촉하는 場面과, ④의 境遇에 있어서 3名의 紳士의 움직임에는, 1910~1920年代의 獨逸表現主義演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元來 Kafka는 時代의으로 表現主義의 影響을 받았지만, 그點에 對해서 그는 스스로 否定的인 消極的인 態度를 堅持하고 있었다.)

#### 4. 變身과 自我

Kafka의 文學作品은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多樣性(Vieldeutigkeit) 때문에 時代과 場所 그리고 人間(읽는 사람의 立場)에 따라서 여러가지 解釋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大別해서 볼 때, 첫째로 宗教乃至는 神學의으로, 둘째로 實存主義乃至는 哲學의으로 그리고 세째로는 深層心理乃至는 精神分析學의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于先 둘째 번 哲學의 見解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作品은 奇想天外(die phantastische Idee, der wundervolle Einfall)의 獻奇的인 이야기, 虛無孟浪한 內容으로 構成된 點에 있어서 至極히 象徵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作品은

- ① 첫째로, 人間의 本質과 運命에 對한 洞察이다. 그것은豫測을 不許하는 萬物의 流轉 속에서, 特히 人間의 삶을 通해서 느껴지는 諸行無常(Alle irdische Dinge sind vergänglich)에 對한 意識이며 驚愕이다. 이것은 佛教의 〈空〉思想, 그리고 虛無主義와도 一脈相通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元來 人間은 萬物의 靈長이라고 自負하지만, 疾病·交通事故·公害·戰爭·天災地變等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떻게 될지는, 未來의 運命을豫測할 수 없는 不安하고도 可憐한 存在이다. 特히 有限한 存在인 人間은 누구나 例外없이 죽음이란 避치 못할

슬픈 운命을 갖고 태어났다.

② 둘째로, 作家 Kafka는 當時 오지리·헝가리帝國의 首都 Prag에 居住하는 猶太系異邦人이 있다. 史的으로 考察해 볼 때, B.C 597年 칼데아王 네부카르 넛자르에 依한 Babylon幽閉以來 猶太民族은 約 2500年동안 歐洲를 爲始해서 世界各地에 흩어져서 定處 없이 放浪을 繼續하며, 가진 虐待와 온갖 迫害를 받았다(Diaspora). 特히 第2次世界大戰 때는 天人共怒할 나치스 政權에 依해서 아무 罪도 없이 逮捕·拉致되어 數百萬의 無辜한 猶太人们이 强制收容所에서 無慈悲하게 虐殺·犧牲당했다. 따라서 이 作品은 宿命的으로 天涯孤獨한 猶太民族의 亡國民의 悲哀를 象徵하고 있다.

③ 셋째로, 이와 같은 猶太民族의 運命과 比喻되는 것이 現代人の 그것이다. 市民的 民主主義社會에서 資本主義經濟와 科學技術의 驚異的인 發達로 말미암아 唯物的인 物質萬能思想이 絶對視되고 人間性보다도 社會的 機能이 重要視되어 모든 것이 機械化했다. 따라서 이 作品은 Mechanismus의 支配下에 疎外된 人間의 赤裸裸한 모습을 象徵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作品의 主人公 Gregor는 삶의 不條理를 느끼면서 限界狀況 속에서 定處 없이 徘徊하는 現代의 人間像이기도 하다. 20世紀 科學文明下에서 個人은 非人間化하여, 단지 規格에 따라 劃一的으로 製造된 機械의 附屬品으로 轉落하고, 孤獨과 不安 속에 絶望과 恐怖에 떨고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人間性의 喪失 또는 主體性의 危機를 象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人間性의 喪失은 人間에게 不安全感을 준다. 그리하여 人間은 어떤 것에 所屬을 얻음으로써 主體性을 回復하려고, 換言하면 잃어버린 人間의 權利를 다시 찾으려고 Sisyphus의 피나는 努力を 되풀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人間의 復權에 對한 努力은 비단 이 作品 'Die Verwandlung'의 主人公 Gregor Samsa뿐만 아니라 'Das Schloß'의 K.라든지 'Der Prozeß'의 Josef K., 그리고 'Amerika'의 Karl Roßmann等, 그의 모든 作品의 主人公들에게 있어서, 그例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所屬을 얻으려는 人間의 努力에 對해서는 서로 相反되는 두개의 學說이 對立한다. 社會心理學의 見地에서 볼 때, 그것은 '孤立과 孤獨, 그리고 自由로부터의 逃避'라고 할 수 있다. 即 人間이 어떤 團體·國家 等 한 社會의 어느 部分에 屬함으로써 하나의 獨立된 個人으로서의 自己行動에 對한 責任을 벗으려는 心理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精神分析學의 立場에서 볼 때, 人間은 主體性의 確立을 通해서 自己自身을 내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自己自身의 獨立과 自由를 維持하려는 性向, 또는 精神狀態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相反된 見解는 二者擇一(Alternativ)의 絶對的·排他的인 것이 아니고, 解釋者의 立場의 差異에서 나온 것이다.

이 變身譚에 있어서 이제까지 隱蔽되어서 그 自身에게도 밝혀지지 않았던 Gregor의 自我是, 그의 不安스런 꿈속에서 甲蟲으로 變身하여 나타나 있다. 이 自我是 心理學의 魂으로서 한결같이 感覺이나, 願望이나 꿈 또는 努力等의 領域圈에서, 어느 特定한 心的 狀態로서

理解하는 것은 이미 不可能하게 되었다. 例를 들어, 職業과 葛藤을 繼續하면서 一聯의 内的인 感情과 理想, 目標等이 勞動世界와 家族世界의 對立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從來 抑壓되어 왔던 Gregor의 本來의 自我를 代表해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假令 이런 解釋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内面世界가 무엇때문에 何必이면 嫌忌와 嘔吐를 惹起시키는 毒蟲(der Ungeziefer)의 모습을 取하는가 하는 點은 전혀 洞察되지 못할 것이다. 變身은 어느 心的, 精神的 그리고 性格의 變身으로서 進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變身譚속에서 볼 수 있는 前代未聞의 不可解한 일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在來式 心理文學(die seitherige Seelendichtung)과는 두드러지게 다르다(Emrich, 1960:126).

여기에 獵奇의인 것의 藝術的 機能과 變身譚에 있어서 甲蟲 Gregor라는 精神的 意義가 있다. 獵奇의인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精神的 意義에 關해서 全的으로 文學의인 象徵性의 領域에 到達하게 된다. 이 作品에 있어서 獵奇의인 것의 非蓋然의인 對照는 한결같이 變身의 經驗動物의인 것과 人間靈魂의인 것과의 對立을 通해서 惹起된다(Kassel, 1969:162, 170).

그러나 보다 根本의으로 實際에 있어서, 人間이 昆蟲으로 變身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萬一에 그런 일이 發生한다면, 그것은 神話・傳說・奇蹟이 아니면, 오로지 꿈과 같은 幻想의 世界에서나 可能하다. 元來 人間이란 甲蟲과는 그 概念과 範疇에 있어서 本質의으로 完全히 다르기 때문이다. 人間 即 生物學에서 ‘人類’(Homo Sapiens)는 哺乳類에 屬하고 猿類와 함께 灵長類에 分類하는데 對해서, 甲蟲, 一名 ‘딱정벌레’[Coleoptera]는 昆蟲類 가운데서도 鞘翅科에 屬한다. 萬一에 科學의으로는 絶對不可能한 變身現象을 頭面 그대로 是認하게 된다면, 저 有名한 Charles Darwin(1809~1882)의 進化論(Abstammungslehre od. Deszendenztheorie)도 無色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生物學上 ‘突然變異說’(Mutationslehre)에 依한 昆蟲의 變種이라고 解釋하는 것도 荒唐無稽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變身後 얼마동안은 Gregor의 家族들이나 會社關係者까지도 그의 人間의 紐帶關係 即 Gregor가 人間(아들, 오빠, 會社員)이라는 事實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그들은 Gregor를 어디까지나 人間이라고 믿는 同時에 적어도 처음에는 그 主體性의 本質에 對해서 秋毫도 懷疑를 품지 않는다. 그것은 Gregor가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本質이 사람의 外面的 肉體的 形態에 있지 않고——肉體를 止揚한——‘自我’라고 불리우는 어떤 形而上學의in 精神力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Gregor의 意識生活은 變身後에도 中斷되지 않고 繼續되고 있다고 본다. Gregor는 甲蟲으로 變身했지만, 言語機能과 心理作用에 變化가 없을뿐더러, 생각하는 思考能力과 意識의in 面에서도 變身前과 조금도 다름없는 行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Gregor의 主體性은 變身前後를 通해서 똑같은 存在일 수는 없고, 또 一貫된 自我란 想像조차 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Gregor의 家族들

과 會社關係者는 그 主體의 ‘同一性’(Identität)을 굳게 믿고 있다.

以上이 이 作品에 關한 朴異汝教授의 主張이다. (文學思想 1972年 10月 創刊號 p. 316~326, 〈主體性과 同一性의 問題〉參照) 무릇 生物은 動植物을 莫論하고 生理的으로 서로 그 構造에 있어서 서로 有機的인 關係를 이루고 있는 組織體이며 스스로 生活機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人間도 제각기 主體性을 가진 有機體인 것이다. 이런 現象은 社會科學에 있어서 國家의 主體性과 同一性의 原理와도 軌를 같이한다. 國家나 團體는 이것을 構成하는 國民이나 構成員과는 다른 別個의 全體的 實在이고 獨自의인 營爲力 및 意思活動에 依해서 스스로 固有의 使命과 目的의 發展을 이룩한다는 意見이다. 이것이 이른바 國家有機體說(Organische Staatstheorie)이다. 따라서 어느 國家나 團體(法人·會社 等)에 있어서 政變·구태타 또는 避치 못할 事由로 말미암아 政權(統治者)이나 所有者(經營主)가 바뀌는 일이 있다. 그런境遇에 있어서도 國家나 團體의 同一性은 조금도 變함이 없이 持續·維持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國家나 團體에서도 該當國家 또는 團體의 主體性과 同一性을 認定해 疑心치 않는다. 이와 같은 理論은 一見 論理의 飛躍과 牽強附會의 逆說같지만 이 作品에 나오는主人公 Gregor의 變身現象에 對해서 示唆를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Gregor에 對한 家族들의 態度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Gregor와 對照를 이루고 있는 것이, 甲蟲 Raban이다. Raban은 저윽이 幻想的이고, 스스로 變身을 바라고 있으며 自己自身을 甲蟲과 同一視한다. 그러나 Gregor는 覺醒狀態에 놓여 있을뿐만이 아니라, 絶對로 變身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Gregor는 家族과는 判異하게 變身當初에는 自己와 甲蟲을 同一視하지 않는다. 甲蟲으로 零落하고, 甲蟲으로서의 習性을 體得하지 않으면 안되는 悲運과 逆境에 處하고 있으면서도, Gregor는 如前히 從來生活해 오던 모든 思考·表象·感情에 사로잡힌채, 이제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自身을 理解시키지 못하는 點에 對해서 苦痛을 느끼고 있다. 그다지도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던 누이同生까지도 나중에는,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밖에 다른 道理는 없어요, 아빠. 이것이 Gregor오빠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생각해선 안돼요!”(Erzählungen, 1954:134)라고 말한다(Emrich, 1960:125). 여기서 變身한 Gregor의 正體가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Gregor가 〈人間動物〉이냐, 〈動物人間〉이냐 하는 問題는, 概念의 遊戲같지만, 事實 따지고 보면 興味津津한 問題라고 하겠다. 時間의 繼起에 따라서 人間이 甲蟲으로 變身했다고 보면 前者이지만, 純粹意識의 本質을 問題로 삼는 現象學的 立場에서 보아, 甲蟲이라는 動物로서 人間과 마찬가지로 意識을 갖고 思考能力까지 지니고 있다면 後者로 看做해야 될 것이다. 이 作品에서 甲蟲의 形態學上의 特徵은, “鐵甲같은 딱딱한 등어리, 겹겹으로 주름잡힌 벗대기, 뚱뚱한 몸뚱아리에 比해서,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가 달려 있다.”라고 描寫되어 있다(Erzählungen, 1954:71). 그러나 이 變身譚에 나오는 甲蟲은, 動物이라기 보다는 醜怪한 生命體를 象徵하고 있으며, 實際로 肉眼으로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表現할 수

없는 存在이다. 갑옷(甲冑)과 같은 딱딱한 겹질로 重武裝한 이 甲蟲은, 外部世界에 對해서 閉鎖的・防禦的・固執의인 그 무엇을 象徵하고 있다. 그 奇怪한 모습은 자못 神秘스럽고 印象의이다. 더욱이나 이 甲蟲의 實體를 把握하고 있는 사람은 家族이나 緣故者 가운데 아무도 없다. 이 動物은 아주 寫實的으로 描寫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決코 理解할 수도 없고, 또 直觀의 對象도 되지 못한다. 變身한 動物人間과 그의 家族들과의 두 개의 異質의인 삶의 世界가 보다 徹底的으로 서로 關聯되면 별수록, 이 作品 'Die Verwandlung'에 있어서 이 問題性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Kassel, 1969:160). 20世紀 現代에 있어서, 우리들은 한 집 안에서, 그것도 人間이 居住하는 住宅建物안에서 人間과 家畜이 同棲・共存하는例를 보는 일도 그다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作品에서 甲蟲으로 變身한 Gregor와 家族들과의 關係는 흔히 한 家庭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愛玩動物(das Lieblingstier)을 기르는 境遇와는 判異하게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Gregor는 絶對로 위에서 말한 愛玩動物의 範疇에 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作品에서 甲蟲은 真理를 內包하고 있다. 왜냐하면, “眞理의 根底에서 緣由한 것은 다시 說明하기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Hochzeitsvorbereitungen, 1954:100) 真理와 自我是同一하다. 自我是 即 說明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들은 自我에 關한 모든 表象의 저쪽에 있다. 甲蟲은 우리들의 意識的・無意識의인 表象의 彼岸을 具現하고 있다. 이 動物은, 人間 그 自體以外의 아무 것도 아닌데도 不拘하고, 所謂 ‘人間世界의 絶對의인 破棄’(die absolute Aufhebung der sog. menschlichen Welt)를 뜻하고 있다. Gregor의 生活世界와 그의 甲蟲으로서의 모습과의 分裂은, 表象과 存在와의 分裂이다. Kafka에게 있어서 表象의 彼岸은, 人間自身 속에 깃들어 있고, 人間外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彼岸의 形象과 ‘直喻’(Gleichnis)는 必然的으로 하나의 現世의인 形象이면서도 同時에 그것은 非現世의 形象이므로 描出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逆說的 事情이 있기 때문에, Kafka는 이와 같은 ‘二律背反의 Dilemma’라는 世界를 叙述하는 데 있어서, 不可解한 方法으로 日常生活 속으로 突入해서 그것을 混亂시키고 驚愕시키는 것 같은 또는 모든 障碍을 除去하는 따위의 여러가지 動物과 事物들의 形姿를 援用하고 있다. Gregor는 악착같이 世界속에 며 무르려고 한다. 따라서 그와 그의 周圍世界에 있어서 安住하고 있는 自我是, 스스로를 사랑하는 生活圈에서 奪取하고, 戰慄을 느끼게 하는 怪物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개의 立場은 다같이 維持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立場들이 合쳐져서 비로소 人間生活이 構成된다. Kafka는 이 두개의 立場들을 함께 批判하고, 同時に 肯定하고 있다. 오로지 'Raban의 隱遁精神'(Einsiedlertum Rabans)으로 말미암아 또는 家族이나 職業에 얹히는 Gregor의 虞慮에 依해서 Kafka를 解釋하려고 하는 것은 誤謬일 것이다. Raban과 Samsa라는 두개의 이름이 ‘그 自身의 이름의 別稱’(Decknamen für seine eigenen Namen)인 것처럼(Janouch, 1951:26; Tagebuch, 1954:297; 11. 2. 1913), 雙方은 서로 Kafka 속에 交錯하고 있

다. 이 두 개의 甲蟲의 概念을 解釋해서 비로소, 그 完全한 뜻이 明確히 밝혀진다(Emrich, 1960:127).

Gregor에 있어서 크게 飛躍하고 自主獨立의인 삶을 營爲하려는, 그의 切實한 所望과 職業과의 葛藤이 그의 不安스런 꿈의 原因이 되었다는 것도 疑心할 餘地가 없다. 이 葛藤에 있어서 職業의 強制 쪽이 强하게 自我가 되어버리고 싶다는 그의 所望이 實現되는 것은, 5,6年 앞으로 延期되기 때문에, 이 所望은 그에게는 必然的으로 범거로운 것이라고 意識되고, 그의 勞動을 阻止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또한 不得已한 일이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可能性,自我 即自己自身은 그대로 羅臺 속에 누워 있기 때문에, 外部世界의 모든 營爲를 自主獨立의으로 그리고 同時에 自由스럽게 操作하며 그때 적어도 스스로 從事하는 營業活動에 依해서 抹殺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支配하는 所謂 Martin Heidegger(1889~1976)의 ‘世人’(das Man)의 概念과 非難의 화살이 날아 와서 貫通되는 依支할 데 없는 ‘自我’(das Ich)와의 極度의 緊張 속에서, Kafka의 注目할 만한 動物變身譚이 이뤄진다. 따라서 Gregor의 自我, 即本來의 自己自身은 抹殺의 餘地없이 삶을 繼續하는 것이다. 人間은 決코 世人이론바 世上의 모든 사람들(人間의 墮落한 存在形式 <die Daseinsform des verkommenen u. verdorbenen Menschen>)이 되어버릴 수는 없다. 이 除去하기 어려운 自我, 世人에게 抵抗하는 이 ‘나’라는 것의 實在性이 Gregor의 具體的인 日常生活속으로 衝擊的으로 侵入해 들어 와서 그림자나 꿈속에 나타나는 妖怪를 쫓아버리듯이 簡單하게 뿐리칠 수 없다는 點에, 바로 이 무서운 變身의 뜻이 깃들어 있다. 이 甲蟲이 바라본 幻想의in 非現實性, 바로 이 非現實性이야 말로 事實은 아무도 回避할 수 없는 最高의 現實性인 것이다.(Emrich, 1960:120)

從來의 小說에 있어서는, 마음의 内面이라는 心理的 平面에 있어서 葛藤이 다뤄졌는데, Kafka는 그런 平面을 徹底하게 捨象하여 葛藤自體를 提示한다. ‘이 文學의 果敢性(die Kühnheit dieser Dichtung)은 바로 이 點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過去의 文學에 있어서 葛藤은 서로 다투는 갖가지 感情과 要求라는 形式을 取해서 人間의 内部에서 發生했는데, Kafka의 境遇에는 이 内面性 그 自體가 疎外되어 있다. Gregor는 스스로 葛藤을 모든 一般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고 省察한다. 即 그것은 作家 Kafka가 이들 感情 및 省察을 同時に ‘그들 相關關係 밖으로 끄집어 내어’(aus ihren Relationen herausheben), ‘世人’과 ‘自我’와의 絶對的인 ‘二律背反의 Dilemma’로 葛藤을 尖銳化시키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이 두개의 領域圈은 이미 省察과 感情에 依해서는 描出될 수 없을 뿐더러, 明確하게 輪郭을 設定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現代史의in 갖가지 原因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Kafka가 形成 및 問題를 觀照하는 무서운 炮眼은, 格別히 意圖해서 是認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어떤 法則에 依해서支配되고 있는 것처럼 서먹서먹한 모습으로 보이는 異邦人처럼, 現代人은 人間疎外의 法則이 덮여져서 가려진 채로 움직이고 있다고 認識한다. 이처럼

世人의 律法, 即 未知의 法則으로 말미암아 頽落해 버렸기 때문에, 現代人은 이미 決코 自我를, 即 스스로의 内面生活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排除하고 눈앞의 打算에 汲汲한 나머지, 그것을 隱蔽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Emrich, 1960:120).

### 參 考 文 獻

- I. Kafka, Franz. (1954). *Gesammte Werke, herausgegeben von Max Brod.* München: S. Fischer Verlag.
- (1) Der Prozeß (=Prozeß)
  - (2) Das Schloß (=Schloß)
  - (3) Amerika (=Amerika)
  - (4) Erzählungen (=Erzählungen)
  - (5) Brief an Milena (=Milena)
  - (6) Tagebücher(1910-1923) (=Tagebücher)
  - (7)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n Lande (=Hochzeitsvorbereitungen)
  - (8) Beschreibung eines Kampfes (=Beschreibung)
  - (9) Franz Kafka, eine Biographie (=Biographie)
  - (10) Janouch, Gustav. (1951). *Gespräche mit Kafka*, Erinnerungen und Aufzeichnungen. Frankfurt a. M.: S. Fischer Verlag. (Janouch)
- II. Andere wichtige Schriften:
- (1) Anderes, Günther. (1951). *Kafka, Pro und Contra.* München: C. H. Beck Verlag.
  - (2) Walter, Benjamin. (1969). *Franz Kafka*, zur zehnten Wiederkehr seines Todestages über Literatur. Frankfurt a. M.: Francke Verlag.
  - (3) Blanchot, Maurice. (1949). *Kafka et la littérature;* Les Editions Gallimard.
  - (4) Bräm, E. Max. (1949).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ihr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Freiburg I. BRG.: Verlag der internationalen Bibliothek.
  - (5) Camus, Albert. (1950). *Der Mythos von Sisyphos*, ein Versuch über das Absurde, die Hoffnung und das Absurde im Werk von Franz Kafka. Düsseldorf: Karl Rauch Verlag.
  - (6) Emrich, Wilhelm. (1960). *Franz Kafka.* Frankfurt a. M.: Athenäum Verlag.
  - (7) Foulkes, Peter. (1970). *Franz Kafka*, Dichtungstheorie und Romanpraxis, Deutsche Romantheorien (Reinhold Grimm). Frankfurt a. M.: Athenäum Verlag.
  - (8) Grenzmann, Wilhelm. (1953). *Deutsche Dichtung der Gegenwart, Begegnung mit dem Nichts.* Frankfurt a. M.: H. F. Menck Verlag.

- (9) Grenzmann, Wilhelm. (1952). *Dichtung und Glaube*, Probleme und Gestalten der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Franz Kafka. Bonn: Athenäum Verlag.
- (10) Grabert, W., (1966).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Bayerischer Schulbuch-Verlag.
- (11) Kassel, Norbert. (1969). *Das Groteske bei Franz Kafka*.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12) Krell, Leo. (1955).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Bamberg: C. C. Büchners Verlag.
- (13) Lee, Sang-II. *Schock und Schaffen*, Erforschung nach dem Kulturbewußtsein und Tradition. Seoul: Changwon Verlag.
- (14) Lentner, Leopold. (1961) *Katechetisches Wörterbuch*. Wien: Freiburg i B.
- (15) Ruf, Urs. (1974). *Franz Kafka*, Das Dilemma der Söhne, Philologische Studien und Quell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 (16) Sokel, Walter H.. (1973). *Franz Kafkas Verwandlung, Auflehnung und Bestrafung*. Darmstadt:H. Politze, F. K..
- (17) Walser, Martin. (1968). *Beschreibung einer Form, Versuch über Franz Kafka*. München: Carl Hanser Verlag.
- (18) Wiese, Benno von. (1956). *Die deutsche Novelle von Goethe bis Kafka*. Düsseldorf: August Bagel Verlag.

## Die symbolische Bedeutung der Verwandlung in Kafkas Werk (I)—anhand ‘der Verwandlung’

Kim, Zyong Zin

### Zusammenfassung

Kafkas Werk gewann großen Einfluß auf die gegenwärtige Dichtung durch Gestaltung der alles durchdringenden Angst inmitten einer gefallenen, unerlöst bleibenden Schöpfung. Die Erzählung ‘Die Verwandlung’ erschien zu den Lebzeiten Kafkas und erregte schon gleich nach der Veröffentlichung großes Aufsehen. Sie enthält einen sehr typischen Zug—formal und inhaltlich einzigartigen—der Kafkaschen Epik und gilt als eines von den Meisterstücke, worin das Hauptproblem Kafka dargestellt wird. Kafka schildert in dieser Erzählung den Verdinglichungsprozeß vom Menschen durchs Tier ins Ding.

Gregor Samsa, der Held dieser Erzählung, erfüllt mit unendlichem Fleiß seine täglichen Pflichten als Handelsreisender. Eines Morgens erwacht Gregor, findet sich in seinem Bett zu einem ungeheueren Ungeziefer verwandelt. Die Erzählung beginnt in dem Augenblick, in dem Gregor im Erstaunen seine neue Existenzform wahrnimmt. Wohl versteht er noch seine menschliche Umwelt und vermag menschlich zu fühlen und zu denken, besitzt aber keine Verständigungsmöglichkeit mehr und ist in den Augen seiner Angehörigen schlagartig zum Tier geworden. Monaten lang leidet Greger durch sein hart getroffenes Schicksal und dazu noch durch die Mißhandlung seiner Familie, bis er durch den Apfel, mit dem ihn der Vater in ausbrechender Wut beworfen hat, unheilbar verwundet, und stirbt.

Dieses Motiv wäre für eine Groteske, eine Satire oder eine Ironie geeignet, aber die Erzählung ist etwas ganz anders. Kafka verkörpert das Gefühl menschlicher Ohnmacht und Ratlosigkeit gegenüber einem bösartigen Schicksal. So wird bereits in dieser Erzählung gezeigt, wie etwas Ungeheuerliches in ein braves Kleinbürgerleben hereinspielt. Das Leben der Familie Samsas, dessen Ordnung des Alltags durch die Verwandlung Gregors zunächst zerstört und dann langsam neu aufgestellt wird, wird sehr nüchtern und sachlich dargestellt. Warum verwandelt sich ein Mensch und wird zum Untier? Die Ursache wird hier nicht erwähnt. Es ist ein absolut voraussetzungsloser Anfang. Dargestellt werden hier nur

die Folgen der Verwandlung. Der Verandelte behält alle menschlichen Gefühle und Empfindungen bei. Er trägt immer noch treuherzigen Familiensinn und nimmt sogar die zarte Rücksicht auf die Familie. Anderseits richtet er sich immer besser nach dem Tiereinsein ein. Er führt sein Leben als Zwischenexistenz in der Isolation vernachlässigt von der Familie als unerträgliche Last.